

연중 제 21 주일

기도서 420 면

제 1 독서 : 여 호 24, 1-2a.  
15-17. 18b

제 2 독서 : 에 케 5, 21-32  
복 음 : 요 한 6, 61-70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③ 5098 ③ 3201

강론



## 슬픈 일

—이세상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가?—

김 태 윤 신부

“주한 미문화원 부산사무소장 매거너씨는 文과 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는 말을 듣고 ‘슬픈 일’이라며 간단히 코멘트를 했다”(조선일보. 82년 8월 12일자).

‘슬픈 일!’ 무엇이 슬픈 일인가? 판결이? 방화가? 아니면……? 음미해볼지하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슬픈 일들이 많다. 사랑받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서 슬픈 것만이 아니라 광주사태, 장여인 사건, 의령사건 등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서글픈 사건들 때문이다. 요즘엔 일본인들의 오리발역사관이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고, ‘바보상자’의 보도에는 입을 벌리고 맹신하지만, 몇 해 전까지만해도 민족의 대변자라고 자랑하던 D신문이 독자를 늘이기 위해 3개월 무료 구독케하는 주변의 일들도 슬픈 일들이다.

나도 슬픈 일들, 서글픈 사건 속에서 슬픈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슬픈 인간! 하나만을 고집하고, 들은 생각지 않는 인간! 자기만을 위하고 남은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인간! 그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으련만……”(마르 14, 21). 예수님의 슬픈 탄식의 말씀이다. 병을 고쳐주는 기적과 빵을 많이 하는 기적을 행할 때는 출몰이 따라다니던 인간들이 생명을 주는 영적인 것을 가르쳤을 때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곁을 떠난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선택한 제자에게 배반까지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열 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입니다”(요한 6, 70).

슬픔에 젖은 예수님 말씀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이 세상에서 나도 지금 예수님의 슬픈 얼굴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원평성당 주임신부)



## 왜곡했다면 시정하라.

일본이 역사를 왜곡했다하여서 상당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곤란한 것은 끝내 어거저를 쓰는점이다. 참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몇 사람들 때문에 일본 전체를 욕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라 국일(克日)운동도 해야겠지만, 그 몇 사람들이 하루속히 바른 마음으로 돌아와 사태를 원만히 수습할 수 있도록 마음깊이 기도해야 하겠다.

왜곡(歪曲)이라는 낱말의 뜻은 「사실과 틀리게 그릇되게 해석함」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음은 옳지 않은(不正)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말라고 가르친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 특히 남을 가르치는(지도하는)사람들은 더욱 거짓을 말해서는 안된다.

8월 3일자 전북신문은 이리發 기사로 이리 태창설유에서 “도산계열 사원 물러가라”는 7백여 종업원들의 농성이 있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이튿날은 이리發 기사가 아닌 연합통신을 받아서 “도산계열 7백명 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전북 이리공단내 태창설유 주식회사(대표이사 권치로)는 3일 하오 인사위원회를 열고 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도산계열 근로자로 알려진 문진구씨(27)등 7명을 해고했다(연합). 이 기사에서의 표면적인 문제는 ‘도산계열’이라는 표현이다. 해고된 사람들이 도산계열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들 중의 몇이 J. O. C. (가톨릭 노동 청년회) 회원이고, 나머지는 J. O. C.에 뜻을 같이하는 근로자인데도, 보도는 “도산계열로 알려진 근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사실과 틀리게 그릇되게 해석하는 왜곡은 지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 숲 정 이 산책



### 문화행사는 우리의 잔치

2백주년은 우리에게 큰 축제가 된다. 이 축제를 영성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문화행사가 필요하다. 문화행사는 단 1회적 성격을 갖는 여러 행사들을 말한다. 그 행사들은 단 1회로 그치겠지만, 그러나 그 결실은 두고두고 향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여러분의 고견을 요청한다.

1. 종류 : 첫째, 2백주년은 교회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에 2백년을 조감할 수 있는 교회사 자료 전시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하여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사료뿐만 아니라, 외국에 소장되어 있는 귀중한 교회사자료를 반입하여 전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술전시회는 국내 가톨릭 미술가의 작품전시와 세계 가톨릭 미술 걸작품의 초대 전시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특히 국내 작가의 작품은 주제가 뚜렷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신도들의 미술 전시회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적인 성가 경연과 합창 발표회와 아울러 구라과의 성음악단을 초청, 음악회를 연다.

넷째, 학술 심포지움은 먼저 한국 사회와 천주교를 주제로 한 사회과학 심포지움과 다음으로 외국의 신학자도 포함한 선교신학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연다.

다섯째, 기념영화를 영화회사와 협의하여 제작 상영하고 또 텔레비전 드라마를 국내의 방송국과 협의해서 방영케 한다.

2. 문화행사 제 단계 : 문화행사의 추진을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다.

제1단계 (82. 7~10)는 문화행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임원을 선출 결정한다.

제2단계 (82. 11~83. 12)는 문화행사의 구체적 중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교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그 준비를 치밀하게 한다.

제3단계 (84. 1~10)는 문화행사의 실행단계이다. 각종행사를 계속 실시한다.

3. 문화행사의 좌표 : 2백주년 기념 문화행사는 단순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교회사적으로나 민족문화사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첫째 민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정신을 함양해야 할 것이며, 둘째 민족문화에 뿌리박은 토착화하는 문화행사여야 하며, 셋째 이 땅의 하느님 백성의 영성적 진작을 그 좌표로 하여야만 할 것이다.

### 기도의 생활화

얼마전까지만 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없어 펍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시집인 시편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들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시편의 성격이 밝게 이해되었고 각 시대의 신앙 형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된 한 가지 주제가 눈에 뜨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하느님 관계' 즉 인격자이신 하느님이 성서 어디서나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확고한 믿음의 기초가 형성된 듯하다. 그 후부터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다.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슬기롭고 절제있는 생활을 해야 하고 "형제를 열렬히 사랑하면 많은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1베도 4,7-8)라는 구절을 깊이 음미해 보았다. 참회, 감사, 간구, 소망, 찬양 등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각양각색의 인간적인 응답이 시로되어 읊어진 시편은 인간의 두백, 원한, 내성, 적에의 저주, 회의와 신뢰, 한탄과 슬픔, 그러면서도 '야훼'를 향한 인간의 애절한 몸부림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렇듯 시편은 입을 때마다 살아서 우리의 삶에 공감을 주는 가치있는 고백이다. 예수께서도 자주 시편을 인용하셨으며 십자가 위에서 수난의 절정에 이르러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시편 22)하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수난을 이 이상 더 적절히 표현할 말이 또 있었는가? 이 절박한 기도는 나의 절망을 극복케 한다.

"주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듯 해도 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사랑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심의 깊은 신비 속에 숨은 무한한 사랑의 위대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지나친 자기 연민과 이기적인 바람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태도가 사랑에는 요구되지 않지요. 이러한 사랑의 요구 앞에 용감히 응할 슬기를 제게 깨우쳐 주십시오. 실속없는 표면적 사랑에 머물러 있고 있을 때 자신을 송두리째 헌신할 사랑의 용기가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고통없는 사랑을 바라는 저에게 참사랑은 영웅적인 것까지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매일 달콤한 사랑의 길썰에 머물고 싶은 충동을 받을 때 참 사랑의 길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걸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사랑이 마치 자기 부정을 요구하는 듯해서 자기를 버림이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듯해서 두려우므로 예수님께서 의지했던 시편의 기도가(시편 22) 나의 기도가 될 때 주님처럼 완전히 신뢰할 신앙을 주십시오. 매일 미사성제에서 당신이 자신을 빵으로 떼어주시는 그 힘으로 저도 형제들에게 생명의 빵이 되게 하소서." (중앙성당 박정미)

고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조 (안토니오)선  
박 (가브리엘)옹 이  
안내합니다

주단·포목(훈수·획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핑크)카펫저  
도매상

**서 울 주 단**

전화 ③ 0 4 5 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금·은·보석·고급 시계  
남문옆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옆(대지탕 입구)  
전화 ⑥4989(사구팔구)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며

전화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락도(덕배)



## □ 박 주교님 중앙(주교좌) 첫 미사 집전

지난 10일 착좌식을 거쳐 6대 교구장으로 취임하신 주교님께서 전주 교구에서 맞으시는 첫 주일(성모 승천 축일)에 주교좌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셨다. 주교님을 뵈오려는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메웠다. 주교님은 첫 영성체하는 어린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셔서 여러분도 나처럼 붉은 모자를 쓰고 있으나, 앞으로 주교가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하셔서 개구장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주교님은 교회가 맡기신 직무를 하느님의 뜻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셨고, 이제 전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전주 사람보다 더 전주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사회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 소금과 누룩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며 협력과 도움과 기도를 부탁하셨다.

## □ 가톨릭 대학생 전국 대회

이곳 가톨릭 센터에서는 지난 11일~14일까지(3박 4일) 가톨릭 대학생 전국 대회가 열렸다. 10개 교구(인천, 수원, 대구, 원주 불참) 48명의 회장단이 모여 가졌던 행사의 내용은 제 1부에서 예수의 사명과 그 시대에 대한 연구 발표가 학생들에 의해 있었고, 현실적인 조명을 위한 모의재판을 치렀다. 제 2부는 각 교구 연합회의 운영 활동 현황 보고와 진단이 상세하게 있었다. 제 3부는 그동안 사정에 의해 미루어오던 정기 총회를 가져 일련 반동안 집행해오던 김 광식(요셉) 회장의 뒤를 이어 김 안드레아군(경희대 치대 2년)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전주교구 외의지도진부는 불참하였다. 또한 이 대회에 모인 회장단은 가톨릭 대학인의 사명을 재다짐하고 현실을 직시하며 이땅에 정의와 진리의 증언자로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 □ 82년도 주일학교 교리 경시대회 결과

82년도 주일학교 교리 경시대회를 많은 본당의 참여와 신부님들의 관심을 비롯,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다.

본 경시대회 시험지를 채점하면서 놀라왔던 점은 많은 참가율과 주일학교 아동의 높은 교리 실력이었다. 그리고 몇몇 공소에서도 참가해 주었는데 그 중에 정읍 한교공소는 직접 인쇄까지 하여 참여한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 창인동 본당은 시상 등위에서 제외되기는 했지만 교사들의 열의와 협조는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알 수 있었다. 많은 기쁨을 남기고 끝난 교리 경시대회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 ※ 학년별 순위(학년별 순위는 교리 성적만으로 했음)
  - 1위 : 1년-창인동, 2년-창인동, 3년-북 자, 4년-전 동, 5년-화 산, 6년-전 동.
  - 2위 : 1년-술정이, 2년-전 동, 3년-김 계, 4년-무 주, 5년-술정이, 6년-주원동.
  - 3위 : 1년-황 등, 2년-파티마, 3년-순 창, 4년-술정이, 5년-노송동, 6년-술정이.
  - 4위 : 1년-수 류, 2년-북 자, 3년-삼 배, 4년-화 산, 5년-중 양, 6년-대 야.
  - 5위 : 1년-전 동, 2년-황 등, 3년-창인동, 4년-남 원, 5년-임 실, 6년-화 산.
- 전주교구 주일학교 학생수 5,542명 중, 3,079명이 참가하였다,  
 불참본당(고창·부안·둔용동·금마·장계·장수·한들·합열, 이상 8개본당)  
 참여본당 31개 본당에 정읍 한교공소도 참여했는데 종합순위는 아래와 같다.
- ※ 종합순위(300점 만점)
  - 1위-전동(265점), 2위-서학동(238점), 3위-상관(237점), 4위-창인동(236점), 5위-노송동(231점)
  - ※ 참가상 1위-순창, 2위-파티마, 3위-임실

전주교구 교리교사 연합회

## 요심이 (472) 김병오



**CBS PAB** 의료 효과의 선구자!  
 神秘食品, 土龍  
 (각종 간(肝)질환에 특효)

### 성모 土龍 센터

(聖 베네딕도 수도원 제조)

전북총판 : 성모병원 3층 309호  
 전화 ⑧ 8 0 9 1

정읍영업소 : 정주시 전화국앞  
 전화 6 3 7 2

김 미 카 엘

(SS) FASHION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 코트의 명문  
**버 킹 검 런 던 포 그**  
 (주) 유 올리안나  
 간이복·성인용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아동용·주니어 삼화약국 옆  
**위 크 엔 드** 전화 ④ 4 4 5 1

□ 신간  
 시와 미와 창조적 직관  
 자크 마리탱/김 태관  
 481면 13,000원  
 선택-미혼 젊은이를 위하  
 여 톰 모로우/정 진자  
 125면 1,500원  
 고백선사-용서  
 A. 니콜라스/서울 대교구  
 77면 700원

숨정이가 「광고」  
 이 용 안 내

숨정이의 활발한 편집운영과 교우들의 친교와 유대 협력 관계를 위해 광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 광고 1간 1회 5천원  
 문의전화 ⑤ 5098  
 숨정이가 편집실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상관성당 강당 축성식: 22일 오전 10시30분(개별초청 생략)
2. TV 방송시간 안내: 22일 12시40분-1시, MBC-TV 일요 전복 시간, 박 정일 주교님 착좌식 및 인터뷰
3.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금일 자 분당 중·고생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4. 베델반 개략: 가톨릭 센타 23일<월>
5. 전국 사목 실무자 회의: 24~26일, 가톨릭 센타, 기도해 드립니다
6. 82년도 주일학교 교리 경시대회 결과: 종합순위 1위(전동), 2위(서학동), 3위(상관)
7. 축! 영명: 24일-성바르톨로메오 문 정현 신부님, 28일-성아우구스띠노 김 재덕 주교님, 이 상호, 김 영일, 강 덕창 신부님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 ※ 성경읽기: 여호수아 24~26장
1. 성모회 총회: 22일 공식미사 후 강당
  2. 프란치스코 3회: 오후 2시 강당
  3. 유아세례: 27일 10시까지 사무실로
  4.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24일은 발도로메오 축일로서 우리 분당신부님 영명축일입니다. 영육간에 건강을 위해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읍시다. 축하식은 22일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5. 성당 신축헌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엄광섭(100만원), 김광열(150만원), 이기성(50만원) 장운식(30만원), 박순주·프란치스코 삼희·김남북(각 10만원), 김홍식·이명희·신순자(각 5만원), 김금순(15만원) 총계: 80,468,000원
- 지난주 봉헌금: 869,748원 교무금: 598,500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정원  
수·사 ⑦7032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이홍재

1.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킵시다
  2. 웅변대회 입상자: 최우수상-이효녀, 우수상-김영숙, 특상-김진수
  3.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에즈라, 느헤미야서 전체
  4. 예비자 교리안내: 일발립...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팀-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반-매주<토> 오후 4시
  5. 제대꽃 기증: 박세욱(해례나)씨 2만원 감사합니다
  6.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7. 켈모임: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일> 오전 9시
  8. 1일찾집 개점: 매주<일>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472,385원 교무금: 702,000원

(덕진)

전화 ⑥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예비자 인도서약서 봉헌바랍니다: 1세대 1인 인도
  - ※ 예비자교리 시작 오늘부터
  2. 미사시간 엄수: 미사 10분전에 와서 준비하여 미사 질서를 확립합니다
  3. 진복회·부녀회: 다음주, 빠지지 마시고 참여 바람
  4. 젊은이들의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젊다고 생각되는 분은 모두 참여합니다 지도-보좌신부님
- 지난주 봉헌금: 605,895원

(복자)

전화 ⑥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조성호  
사도 회장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예비자교리: 매주일 공식미사 후, 허 메레사씨 지도
  3. 미사에 늦지 않도록 10분전에 와서 준비합니다
  4. 주일학교 방학: 어린이미사 매주일 오후 3시
  5. 차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장영담 ②전정숙(아가다)
- 지난주 봉헌금: 499,295원

(서학동)

전화 ⑥2276 주임 신부 김병환  
보좌 신부 활인규  
사도 회장

1. 축하합니다: 영세자 17명
2. 중·고생 시화전: 24일까지, 부모님들의 관심을 바

(상관)

3. 중·고생 교리경시대회: 일요일 학생미사 후(강당)
  4. 예비신자 교리: 9월 첫주일부터 시작합니다
  5. 주일학교 학생 성가연습: 어린이 합창단 매일 오전 10시, 빠짐없이 참석 바람
  6. 차주 전례담당: 독서-①장기호 ②차상일
- 지난주 봉헌금: 303,660원 교무금: 79,5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 ⑥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축! 성전 축성식·이대권 신부님의 회갑식: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요안회 월례회: 29일 공식미사 후
  3. 중·고생 교리 경시대회: 22일 교재범위: 한국천주교회사, 빠짐없이 참석 바람
  4.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송우호 ②남상용, 기도-이귀례
  5. 미사참례자 안내: 나홍덕, 문스벨라, 정공순, 이정숙, 유루시아, 이은자
- 지난주 봉헌금: 497,31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업  
사무 ⑥3222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⑥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2시
  2. 주일학교: 방학동안 교리없음, 오후 3시미사만 있음
  3. 4대축일 배구대회: 성모 승천축일 배구대회 6개팀 출전 성황리에 끝났음
  4. 교무금: 교무금을 월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비가 미수되어 있는 월정입니다
  5. 숲정이 500호 기념집 발간: 사무실에 숲정이 500호 기념집이 발간되어 비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6. 수녀원 소감담: 아직도 미신입자가 있습니다. 속히 신입해 주시고 신입하신 분은 빨리 납부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김동연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신일균 ②고수창  
저녁미사: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승호 ②김동수
- 지난주 봉헌금: 700,460원 감사합니다

(파티마)

신부 ⑥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⑥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오늘 중·고 교리경시대회: 의무적으로 참석할 것
  2. 복사단 단합대회: 교리교사 인솔 하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3. 유아세례: 차주 3시 반 미사 후
  4. 하신부님 미사와 특별강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다음주) 푸른 군단 지도 신부님
  5. 초·중·고생 금주 개학: 모든 학생들이 무사히 방학을 마치고에 감사하는 뜻에서 화요일 밤미사에 참석합니다
  6. 28일은 분당신부님 영명축일: 신부님 영육간 건강을 위하여 분당 신자들은 많은 기도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2,080원 교무금: 208,000원